

▶ 전북도립국악원 창극 **청년 이성계**

# 역경 닥쳐와도 열정으로 이겨내리라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는 말이 있다. 이는 유년기와 청년기의 터널 속에서 자아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하고 성장시키는가 여하에 따라 그 무게감을 달리 한다.

전북도립국악원(원장 신동호)은 창극 ‘청년, 이성계’를 정기공연 및 지역순회 작으로 선보이며 태조 이성계가 왕관을 쓸 수 있었던 성장과정과 배경에 주목한다.

작품은 이성계가 원나라 총관부 지배를 받는 회령부의 지배층으로 태어나 아무런 고민 없이 살다가 어떤 사건을 마주하게 되면서 고려인으로서는 자각과 각성을 하게 되고, 이를 계기로 원나라 총관부의 지배를 물리치고 고려

개경의 위기에 가병하는 과정을 담아낸다. 기존 드라마나 작품에서 그려졌던 이성계의 성군 이미지가 아닌, 소년적인 모험심과 반항심 그리고 이성애에 눈을 뜨는 풋풋한 사춘기의 모습 등을 통해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고자 했다.

특히 창극이 가지는 유희성과 풍자성 그리고 연희성을 극대화 시켜 기존 인물 사극이 지니는 심각성과 정책성에서 벗어나 유쾌하고 재미있는 인물사극으로 제작했으며, 역사적인 사실과 극적 분위기를 위해 픽션을 가미했다.

성군 이미지 아닌 인간적 면모 담아내  
사극이 지니는 심각·정책성 탈피  
29일·내달 8일 익산·전주서 무대

‘청년, 이성계’는 도내 제작진을 비롯하여 수도권을 중심으로 활발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는 젊은 제작진들이 만나 만들어졌다. 극본은 오은희 작가가, 연출은 오진욱 전 새만금추진위원회 단장이 맡았다.

오은희 작가는 “제목에 ‘청년’이란 단어를 넣은 것은 이제 자각을 시작한 단계이며, 앞으로 더 나아갈 험한 길이 있지만 푸르께 그 길을 이겨나갈 ‘열정’을 감추고 있다는 뜻도 들어있다”고 작품을 설명했다.

작곡과 작창에는 ‘차세대’를 이룰 젊은 예술가 10인’으로 선정된 홍정희와 박인혜가 참여했다. 안무는 박이표, 지휘는 조용안 관현악단장이 맡았다.

작장을 담당한 박인혜는 청년 이성계는 달력제로 스스로의 즐거움을 찾아내고, 때로 호령하듯 우주로 세상에 고한다. 당찬 여인의 모습을 보이는 한 씨는 진

중한 계면조와 유투 있는 경계로 자신의 사랑을 담아내며, 그들을 지켜보는 일월의 입에서는 서도소리의 로맨스가 흘러나온다고 작품을 소개했다.

신동원 원장은 “청년 이성계가 도립국악원의 대표적인 브랜드 공연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시·도 순회와 교류를 통한 수정·보완을 거쳐 완성도를 높여 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연은 전석 무료로 오는 29일 오후 7시30분 익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을 시작으로 내달 8일 오후 7시30분, 9일 오후 3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만날 수 있다.

\*공연 문의 익산 859-3254, 전주 290-5539.

/정해은 기자



## 전통문화전당, 평창올림픽 세시풍속 행사 임영민속연구회와 공동 추진키로

내년에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한국전통문화전당과 (사)임영민속연구회가 세시풍속과 관련한 전통문화행사를 공동 추진하게 된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오태수)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강릉에서 진행되는 세시풍속축제인 ‘세시문화제전’과 정월대보름 맞이 ‘망월제’를 추진하기 위해 (사)임영민속연구회와 상호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당은 산하 전통문화정보센터에서 ‘세시풍속 이어가기’ 사업 등 민속 문화 전승과 보존 등 다양한 형태의 전통문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사)임영민속연구회 역시 지난 1988년 창립 이후 대보름 민속을 부활시킨 망월제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민속놀이 등에 대한 전승과 보존에 힘써온 민속연구 단체다.

‘세시풍속’에 대한 운영 노하우를 가진 두 기관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에 맞춰 우수한 우리문화를 세계에 알려낸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그 공식적인 첫 자리로 지난 22일 전당 한지산업지원센터 4층 세미나실에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2018 평창동계 올림픽 기간 중 세시풍속 문화행사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홍보 마케팅 방안 모색, 세시풍속 문화행사 진행사항의 긴밀한 정보 교류, 세계 속 전통문화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아이디어 발굴, 지역 세시풍속 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자료 및 정보에 대한 교류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정해은 기자

## 내년도 ‘우리소리 우리가락’의 주인공 누구?

### 우진문화재단, 11명 선정

우진문화재단(이사장 김선희)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공모하는 ‘2018우리소리 우리가락’에 박동석씨 등 11명이 선정됐다.

우리소리 우리가락은 국악·양악·무용부분 등에서 참신한 기획으로 주목받은 예술가를 선정하여 작품제작과 발표·홍보 등을 지원한다. 왕기석 정음시립국악단장·명창과 지성호 작곡가, 최재희 안무가가 각 부문별로 심사에 참여했다.

국악부문에는 작곡가 박동석(26), 퓨전국악실내악단 소리애(대표 이성구), 가야금연주자 이예원(29)이 선정

### ▶ 국악 & 양악 부문

국악 - 박동석 · 이예원 · 소리애  
양악 - 문세희 · TopVoice

됐다. 박동석의 ‘작곡발표회’는 예술성과 대중성에 대한 고민이 묻어나는 무대로, 소리애(대표 이성구)의 ‘사랑, 그리움다 춘향전’은 창작곡을 국악실내악으로 선보이는 무대로, 이예원의 ‘가야금 독주회’는 산조특유의 긴장과 이완의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는 연주로 높은 평을 받았다.

양악부문에선 피아니스트 문세희(30)와 4인조 성악가로 구성된 TopVoice(박세훈, 박진철, 변지현, 장수영)가 뽑혔다. 피아니스트 문세희는 연주활동 반경이 국내·외를 아우르고 그 내용이 알차기, TopVoice(박세훈·박진철·변지현·장수영)는 기획이 신선하고 독창적이며 레퍼토리가 청중들에게 흥겹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이끌어 냈다.

이와 함께 무용부문의 신인출판에는 김용희(27)·이주은(24)·정소희(27)가, 젊은출판에는 오대원(33)·임은주(39)·한정규(38)가 각각 선정됐다. 심사위원은 신인출판의 무용가는 지역출신과 활동여부 그리고 자질과 역량, 젊은출판은 개인의 안무경력과 작품계획서에 걸맞은 안무능력 역량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정해은 기자



### ▶ 무용 부문

신인출판 - 김용희 · 이주은 · 정소희  
젊은출판 - 오대원 · 한정규 · 임은주

# 순창청년회의소 창립 41주년 신·구 회장단 및 감사 이·취임식



함께하는 변화 행동하는 순창JC!

어느덧 **순창청년회의소**(이하 순창 JCI)가 **41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순창JCI에서는 기념식과 함께 **신·구 회장단 및 감사 이·취임식**을 열고자 합니다. 12월 1일 열리는 뜻 깊은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2017년 **12월 1일(금) 18:00**

**순창국민체육센터**



이임회장 **최형원**



### 2018년도 회장단 및 감사

- 상임부회장 정용준
- 내부부회장 장성일
- 외부부회장 박정수
- 감사 김신희
- 감사 이기영



취임회장 **김종덕**

**JCI** 순창청년회의소